제325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6월16일(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계속)
   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전대책 점검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계속) ····· 1
   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전대책 점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에 있었던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회의에 이어서 9월 개막을 앞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 및 안전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안보고

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전대책 점검(계속)

○위원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전대책 점검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아시아게임 유치 이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에 7년간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일까지 딱 95일 남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로 지은 주경기장에서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아시아게임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주경기장 개장 기념 테스트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 관중의 입·퇴장, 교통 및 수송·의전·안전·경기운영 등 대회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가해 명실상부한 퍼펙트 아시아게임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45억 아시아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를 실현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성공하려면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국정원·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군·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조직위 차원의 안전대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한 아시아경기대회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대회개관 및 일반현황,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대회개관과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 추진성과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경기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종목 36개에 대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8월 15일까지 최종 엔트리를 접수한 뒤 8월 중 조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식지정병원 운영 등 의료서비스 및 도핑 관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5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감동의 개·폐회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데 해외 성화는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해서 중국을 거쳐 인천으로 들어오며 국내 성화는 강화 마니산에서 채화한 뒤에 해외 성화와 합화돼서 조선시대의 옛길 등 전국 16개 시·도 구간에서 약 한 달간 봉송됩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는 유명 셰프가 참여하는 아시아 음식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붐 조성입니다.

박태환·손연재·추신수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들을 통한 대회의 홍보와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PR 로드쇼, Fun Run 행사 등 맞춤형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수익 창출을 위한 안정적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 후원사를 확대하고 기념주화 발행 등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국내외 대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8쪽, 최상의 대회운영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자 1만 3500명을 비롯해 모두 6만 1000여 명의 대회운영인력을 확보했습니다.

대회 참가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본부 호텔 등 주요 거점에 모터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운영,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등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전 종목 고화질 방송을 구현하는 등 고품격 방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10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IT 기반을 구축,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한 저탄소친환경대회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장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OCA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참가국 선수단에 고품격 의전을 제공할 계획이며 국내외 협력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한 아시아게임 구현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대테러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대회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보안검색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장 안전대책을 위해서 경찰·소방본부와 연계한 현장안전활동을 수행하고 경기연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장 합동점검반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장별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각별히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입니다.

대회를 4개월 남겨 두고 성공적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대회의 준비상황 보고와 안전대책을 보고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일반스포츠 경기대회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스포츠 경기의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와 용기를 주고 삶의 활력과 새로운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무대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감동의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조직위에서는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과 화합의 분위기 확산은 물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여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역대 장애인대회 중 최고의 안전한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전 보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현황,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마는 대회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 사항은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안전 보안대책,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기장 및 선수촌 확보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아시아게임와 연계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아시아게임에서 사용하는 경기장과 훈련장 48개소와 개·폐회식장을 포함한 시설은 총 49개 시설로서 AG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선수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수촌 운영은 구월보금자리주택 17개동, 1613개의 실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 중 2개동, 243실은 대회 지원요원 숙소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선수촌서비스센터,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기운영 준비에 있어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휠체어테니스대회와 7월 5일부터 개최되는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를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해서 사전에 한 번 체크를 해보는 등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T를 접목한 대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가선수들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반영한 등급 분류를 통해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고 특별히 장애인 선수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는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과 조력자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을 축하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준비하는 화합의 무대가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화 봉송은 강화 마니산에서 채화하여 1박2일로 인천시 지역만 순회를 하고 문화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재미와 감동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대회 운영 인력은 약 720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필요인력에 대한 확보는 이미 되었고 이들

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임무숙지를 통해 대회가 완벽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에 필요한 차량은 총 820여 대, 이중 휠체어 장애인 수송을 위해 특장버스 189대, 특장웨건 78대가 현재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특장버스에 대한 것은 85%, 특장웨건은 계획 대수를 초과한 내용으로 확보한 상태로 특별히 특장차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를 주관방송사로 선정해서 개·폐회식 및 주요 13개 종목이 방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고 대회 운영 물자는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최소비용으로 숙박시설은 장애인 편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대외협력 추진 상황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 지자체의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통해서 연계 사용 가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통해서 약 11개 사업, 270여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9쪽, 안전한 대회를 위한 대책입니다.

분야별 시설은 경기장, 선수촌 등 60개소로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1일 약 3800여 명을 지원받아서 대테러 및 안전대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 도모와 안전 위해요소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안검색 전용 검색대를 운영하고 대회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토대로 부서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해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른 타깃별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식음료 관리, 전염병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안전대책으로 비상시 장애인을 위한 1대 1 맞춤형 대피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선진 장애인 안전시스템 도입을 위해 이천시 소재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 비상상황 대응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요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훈련 시 장애인이 참여한 상황별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동익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업 지원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휘장사업 목표액은 총 227억 원 이상으로 국내 30대 그룹과 인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도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재 약 33억 정도만 확보가 되어서 목표 대비 14.8%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는 아시아경기대회의 후원 선점, 광고효과 미흡,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휘장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으며 전경련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사회 공헌의 관점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또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회 및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업들의 후원 동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구매 협조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 목표액은 23억 원 이상으로 6월부터 사전판매를 시작으로 8월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입장권은 개·폐회식 입장권에 한해서 판매를 하며 개회식은 현재 25만 원, 폐회식은 1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였고 23개 일반 경기장에 대한 관람은 무료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매 대상은 후원기업과 인천 지역 기업체,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판매는 조직위가 전담을 하고 인천시는 군·구, 사회단체, 공사, 공단,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안행부

를 통해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공기업, 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판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단체 등 소속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조명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대회 2014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45억 아시아인의 최대 축제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 분위기로의 전환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대회 개최를 통해서 안전의식 기반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유관기관 간 기획지원단을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매뉴얼·시스템화하여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대회 참여 시민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장입니다.

대회시설은 경기장이 49개, 이 중에서 신설이 17개가 되겠습니다. 훈련시설도 48개이고 3개를 신설했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비가 2조 580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시설의 여러 가지 절약적인 사용을 위해서 절감이 한 8354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선수촌, 미디어촌의 현재 공정률이 91%로 선수촌단지에 미디어촌이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선수촌은 1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미디어촌은 2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거의 다 준공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후에 비용 대비 수익률 평균이 75%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경기장은 156%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표에 보시면 위탁 운영하는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사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안전한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해서 안전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정원,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의 협조 지원체계를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 및 본부호텔 등의 주요 장소에 24시간 경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팀이 참여함에 따라서 북한 전담팀을 마련해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전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 소방안전종합대책 기본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합동훈련을 42개소 중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경기장 테스트이벤트 행사로서 조직위와 같이 안전점검 사항을 저희들이 함께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7월에서 8월까지는 대회시설 집중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첫째, 경기장, 선수촌 등에 집중 안전점검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안전매뉴얼 제작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

고 직무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소방·경찰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대응 체계가 긴밀히 구축될 수 있도록 수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기간 중에는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3일간은 특별경계근무 설정을 하고 소방안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원 325명, 장비 18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안전행정부와 같이 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대회에 활용해서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위 등 안전관리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인천시에 구성되어 있는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 추진기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는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 준비단의 현황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우리 아시안게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올해 주요 행사를 대비해서 국가중요행사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지방검찰청에도 아시안게임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있는 군 17사단에서도 아시안게임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 경기장 안전대책 점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기장의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셨듯이 특히 가변 관람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했고요, 특히 가변 관람석에 대해서는 설계 하중이 400㎏입니다마는 이보다 300㎏ 이상 더 초과해서 시험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1㎡당 보통 삼 점몇 인 정도의 하중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람석에 있는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는 가리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람석과 발판 사이에 빈틈이 보여서 핸드폰 등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은 메우려고 다시 추가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기장의 안전점검은 12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시설물을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 안전을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8월 중에 점검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인력본부라든지 감리시공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와 같이 운영을 해서 다시 한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치러지기도 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비통에 잠겨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국가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안전은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데…… 탁상공론으로 그치거나 페이퍼로만 그치면 어떤 실효성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명우 부시장님께서도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경기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SBS에서 방영된 내용 보셨나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케이블 TV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잘 못 봤을 수 있겠습니다.

(14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게 한 6분짜리인데 필요한 부분만 3분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두 위원장님도 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만들었다고 8페이지에 보고한 내용들이지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치한 내용들이 뭐예요, 현재까지? 아직 손을 못 댔습니까, 손을 댔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가변 관람석 문제를 첫 번째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트러스 구조의 불안감이라든지 틈새가 있어서 핸드폰 등 물체가 낙하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 동영상을 보셨고 현장도 가보셨다니까…… 그런데 저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우선 관람객들이 거기 올라가 앉아 계실 때 또는 통행하면서 불안하게 느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떨어지지 않는다, 뭐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느끼는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일 끝 좌석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부시장님?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난간 바로 옆에 있는 좌석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가리개라든지 안전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까 물병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밑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다 밀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낙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최소 한 7, 8월 중까지는 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8월까지 가서는 안 되고 7월 중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늦어도.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성화대 가스 보관용 콘크리트 건물이 누출되는 상황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이건 관리를 잘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우선 성화대의 가스는 LPG가 아니고 LNG이기 때문에 사실 폭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박태환수영장과 관련된 것은, 다이빙대와 관련된 것은 3m, 7m 동시에 연습하게 되면 사고 확률이 높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기술규정에 있어서는 공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합이 정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백재현 위원 저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나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외에도 지적한 내용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도 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는데 미루지 말고 적기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느낌 자체가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 만큼 거기에 충족될 만큼 대안들을 만들고 구체화시켜서, 아직도 한 90여 일 남았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백재현 위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인천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백재현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전을 무시하는 공사를 강행하거나 경기장을 건립하면 나중에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 아까 이야기가 나온 대로 관람석이 6만 2818석…… 그렇지요, 만석이 된다면?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그러면 수많은 인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교통수단이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럽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주경기장이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지금 잘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용역을 줘서 특히 개·폐회식 때 일시에 몰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했을 때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셔틀버스는 400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별로 또 출발지별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주경기장 주차 면수가 겨우 1901면, 그렇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지금 택지 개발 예정지나 수도권 매립지, 가정동 특구지역, 또 차량 2부제 등등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축구시합을 할 때 한번 검증해 봤는데 골목마다 난리가 났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골목마다 불법주차 하고 몸살 났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좀 계셨습니다.

○박대동 위원 지금부터라도, 교통 혼잡은 유사시에…… 오늘 회의의 가장 핵심이 안전점검인데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SBS에서 방영된 내용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약 3만 5000여 석에 해당되는 가변석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10월 19일부터는 또 장애인올림픽 때 시설 활용하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선수단도 물론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가변석은 아시안게임 때만 활용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문학경기장에서……

○박대동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관람석에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까, 뭘 이용합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엘리베이터를 주로……

○박대동 위원 엘리베이터는 몇 층이나 되나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조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조직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사고라는 것은 불시의 상황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안 할 말로 있어서는 안 될 테러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상존하게 되어 있고,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췄다든지 수용하는 인원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두셔야 되거든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참고적으로 주경기장의 장애인 관람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사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IT 접목한 시설 운영과 경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IT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악의적인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전문가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응급대응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안전과 관련된 각계 기관 간의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컨트롤타워에 있어서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사고 유형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시장이?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그러면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현장에서 그걸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도 있겠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 쪽에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일반 관람객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전화를 어떻게, 시장한테 직접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연락합니까? 번호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경기장별로 안전관리요원, 운영관리요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앱을 통해서 바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이 시장까지 보고가 되고 만약 대형사고라 그러면 사고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능별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물론 매뉴얼이 다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위에도 예컨대 IT 문제를 물으면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숙지시켜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화재 때는 어떻게 하고 테러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천아시안게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0일이면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 45개국에서 1만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오는 것이고 또 응원단을 포함하고 관람하러 오는 청중들까지 생각을 하면 수백만이 대회 기간 동안 경기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오늘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우리 특위 회의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안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 좀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의 경우에 여름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7월 달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시간당 100㎜, 200㎜ 이런 폭우가 온 적이 있는데요. 2010년 8월 30일에도 송도, 부평, 인천 전역에 150㎜가 넘는, 지역에 따라서는 200㎜까지 폭우가 내리고 지역적으로 침수가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우선 경기장의 폭우에 대한 안전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2010년도 9월 달에도 이런 집중호우가, 9월 21일 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대회 경기 기간 중에 폭우를 만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 문제는 인천시가……

○윤호중 위원 인천시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부시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우리 신설 경기장들은 50년 주기의 안전점검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50㎜ 정도 와도 자연배수 등의 형태로 침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50년 주기, 시간당 15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10년도 8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시간당 207㎜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시에 보도도 있었지만 50년 주기가 아니라 80년 주기의 집중폭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인천이 서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서해에서 몰려오는 비구름 때문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시설 안전만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비가 오게 되는 경우에 경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관람하던 관중들이 일시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단지 화재 또는 폭발 사고, 테러 이런 것에 대비해서만 대피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할 것이 아니고 우천시의 대피 동선이나 계획 이런 것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다음은 지금 정부의 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들어가면서 이를테면 소방안전에 관한 지휘체계가 변경이 오게 되지요. 그다음에 또 인천은 바다에 접하고 있는 곳이라 해양경찰청도 해체가 돼서 그 기능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를 유기적으로 맺어 오셨을 테지만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문체부나 이런 관련기관과의 협의 내용이 이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번 시험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층 지휘체제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 지역에서만 경기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같으면 인천시장 책임하에 모든 안전 문제를 대책도 세우고 관리해 나가면 될 터이지만 협력도시가 지금 있지요? 협력도시

가 3개 시도에 걸쳐서 9개 시·군·구에 전부 13개 경기장 또 4개의 훈련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 고양 안산 수원 안양 심지어는 충주 부천 화성 하남 이런, 충청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의 안전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말씀하신 대로 타 협력도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 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안전 CP라든지 통합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체계에 준해서 협력도시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등을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주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관람석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경기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요. 추후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변석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변석 밑쪽에 보니까 약간 얼금얼금해 가지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6월 1일 날 주경기장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로 한국하고 쿠웨이트 간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개최하셨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걸 했을 때 여기 평가전을 관람한 관객들이 바닥 틈새로 아래가 보이고 철골 난간 등이 불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이벤트 이후에 조직위가 결과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저희가 그날 철저히 시간대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핸드폰이 한 7개 정도 낙하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기술적이고 설계상이나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때 조직위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들었는데요,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 작성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결과보고서 문제는 어떤 의미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권은희 위원 테스트 이벤트 이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게 있더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 자체 평가……

○권은희 위원 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건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거기에 가변 관람석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럼요. 말씀드리면 차제에 한번……

오늘 인천시 조명우 부시장이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원래 시설은 개최 도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차피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설사, 시공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고 저희들 조직위에서는 어떻게든지 안전을 위해서 튼튼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BS에서 방영됐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에 저희 조직위는 벌써부터 그 점을 인천시 지원본부에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틈새를 다 메우고 그다음에 경사가 급한 데는 난간도 설치하고 난간이 부적합한 데는 좀더 강화시킬 것을 다 요청을 해서 아마 그런 데로 우리가 꾸려가도록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SBS 보도도 나왔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도 아마 확고하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모든 점을 보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권은희 위원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여쭤 보는 거는 테스트 이벤트를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자고 한번 테스트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거기에 제대로 정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저희 의원실로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인천시가 가변관람석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모두 다 발굴을 해 내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안전 대비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화대에 공급할 가스가 저장된 구조물이 가변관람석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고압가스가 나오는 1급 위험물이라면서요? 가스가 혹시나 누출이 되거나 폭발할 경우에는 위험한데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치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대 가스는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액체상태인 도시가스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위험성은 지금 없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폭발의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숙박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다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사실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월호에서도 보듯이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할구역에 1400여 개의 숙박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숙박업주나 종업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실시를 했다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2년마다 정기적인 교육은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저희가 마침 올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작년에 전국체전도 했고요, 또 올해 5월부터는 소년체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의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의 점검 문제, 특히 관리자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자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실제로 활용능력이 있는지 등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활용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지 아무리 장치는 제대로 해 놓더라도 사람이 활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권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다 마치셨나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최동익 위원 거기 경기장 관람석 쪽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제가 지금 23개 경기장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대충 몇 %로 돼 있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

성일 지금 경기장별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왜냐하면 경기장의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분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거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경기장 관련해서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또 장애인 쪽하고의, 편의시설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다 점검하고 보완할 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셨나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현재까지 보고서를 만든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대략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동익 위원 그러면 인천시 부시장님, 경기장 설치할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휠체어석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검토된…… 편의시설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점검받아서 그 시설을 정리하셨나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익 위원 예, 인천시 부시장님!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장애인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경기 대비해서 저희 일반 경기장들은 법정 장애인 대비 시설 비율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장애인경기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시시설물로 우리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거를 어디서 설치한다고요?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요, 인천시에서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거는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치합니다.

○최동익 위원 경기장 시설을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반 경기장에 있어서 장애인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경기 전용으로 하는 임시시설물들은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김성일 위원장님,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그 예산 얼마 확보하고 계시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장애인경기를 위한 특별시설은 현재 1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거는 경기시설이지 관람석 부분이 아니잖아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임시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관람석, 경사로, 그다음에 경고용 타일, 점자표시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동익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열리기 전에 이미 다 설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건 인천시에서 같이 책임지고 해 줬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그건 지원대책본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매주 협의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지난주에 회의할 때 장애인재난구조대책이라든가 재난구조시설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점검하고 어디에서 예산 확보해서 반영할 생각이시지요? 인천시입니까, 장애인조직위원회입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또 특별히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안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인천시 행정부시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일반 경기장에서 장애인관람석 수는 일반 경사로 같은 데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몇 좌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반

인석인데, 장애인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숫자나 목발을 짚은 장애인에 대한 관람객 숫자가 엄청 비율이 높아지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기장에서는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휠체어장애인들이나 목발장애인들이 가기가 곤란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특히 거기에 재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휠체어장애인들에 대한 자리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일반 경기장 내부시설을 할 때 만들어 주신다든가 했어야지 그것을 보조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저 14억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반 경기장은 14억 가지고 주경기장 하나 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예산일 텐데 나머지 경기장들을 다 저기다 떠넘기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가변좌석 얘기했었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최동익 위원 가변좌석에는 장애인석 있나요, 없나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가변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일반석에는 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장애인 개막식은 서구 주경기장 가변석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변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변석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재난 관련, 대피 관련 대책이 지난번에 전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장애인경기조직위원회에다 맡기실 겁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저희가 가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장별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저희 안전관리요원들이 수백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대피로라든지 대피장소까지, 안전관리요원들이 경기장별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다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전동휠체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전동휠체어 하나의 무게가 100kg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휠체어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킬 거고, 다 대피 가이드매뉴얼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회의 와서도 지금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장님께서 아까 내용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천 훈련원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그리고 현재까지 고려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답변을 하시면 장애인들의 안전은……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은 이래저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거는 그냥 조직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다 손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예산하고 계획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자료를 보니까 인천시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양쪽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하나인데, 물론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마는 다른 포맷으로 지금 보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축에 의해서, 한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 따로 인천시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안전문제는 시설안전하고 운영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운영의 안전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관한 안전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기 중에 대형 재난사고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책임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왜 그 얘기를 제가 물었냐 하면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벌써 양분화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용을 봐도 유사시의 체제가 달라요.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윤호중 위원이 지적했듯이 타 시·도에도 경기장이 있단 말이지요.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소방방재청에 국가중요행사기획단이라는 게 있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아시안게임지원단이라는 것이 있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아시안게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고 군 17사단에 인천아시안게임지원본부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것도 사고유형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관련 부분은 저희 소방안전본부(CP)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능별로, 분야별로 관장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복합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걸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부터 구조·구난, 병원 후송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런 분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 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각 기획단·지원단 이 팀들이 지금까지 한번 모임을 갖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방재청 단위에서도, 상위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요.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말고 제 얘기는 종합적으로 이 모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본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중앙에서 한 번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중앙 어디 어디에서 몇 월 며칠날 어떻게 모여서 했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방재청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어디 어디 모였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컨트롤타워예요? 거기에서 주관했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각기 갖고 있는 기능과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처럼 유사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단 말이지요. 유사시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련 부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획단 다르고 지원단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지요. 우리 인천시 다르고 조직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물론 준비는 각자 잘한다고 봅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매뉴얼, 아무리 좋은 지원단·기획단이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총괄해서, 시장이 총괄해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 조직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잘 압니까? 그러면 시장이 주관하셨어야지요. 주관 부처를 하나로 정하세요. 시장이 하든지 국가기획단에서 하든지 어디선가는 컨트롤타워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런데 위원님, 기능별로는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게 하되, 기능별로 하되…… 당연히 기능별로 해야지요. 그러나 우선 먼저 종합적인 대책·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게 구축하도록……

○염동열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아시안게임에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에서 몇백 명의 인명피해 발생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소방안전법에 대형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세월호도 매뉴얼 각기 다 갖고 있어요. 해양경찰청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유사시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별 지원단 점검도 좋습니다

마는 이 컨트롤시스템, 예를 들어 7인회가 됐든 5인회가 됐든 적어도 기능별 책임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한번 개최를 하셔야 돼요. 시장 주재로 하든지 몇 번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개·폐회식장 문제, 10만 명이 들어오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개회식 때는 6만 2000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임시관람석이 제가 런던에 가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한 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임시관람석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가 느꼈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안감도 있고 또 과연 하중을 견딜까…… 실질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중은 유사시에 한쪽으로 쏠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100이라고 한다면 200~300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개·폐회식장이 그런 쪽의 점검이 됐는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다음에 북한선수도 참석하게 되는데 테러위험 문제도, 제가 소치에 가 보니까 이중 삼중,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그것 벤치마킹해서 이런 테러문제도 잘 점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염동열 위원님의 이 지적을 각별히 생각하고 이걸 구현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컨트롤타워가 있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지금 가변석 문제를 계속 염동열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데요. 가변석의 문제도 잘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다시 한번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앞서 지적을 염동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위원님, 유형별로……

○김현 위원 아니요, 유형별로 말고요. 최고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우리 시에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김현 위원 아니요, 만약에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법적으로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 위원 국정원이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김현 위원 국정원이잖아요, 컨트롤타워가?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아니, 그것은……

○김현 위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금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테러……

○김현 위원 국제대회 위원장……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는 국무총리였는데요, 국정원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위원님……

○김현 위원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테러 문제는 국정원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는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를 들어서 재난은 소방안전이고……

○김현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데 부시장님은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안……

지금 이것 매뉴얼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 여기 오늘 보고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 등 안전관리 운영체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대책본부 편성·운영체계 다릅니다.

만약에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타워입니까? 그러면 인천시장은 인천시장대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장대로 하고 아시아조직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합니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누가 주관해서 안전사고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경찰청장 따로 국정원 따로 소방방재청 따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주관하는 거지요, 이 회의를?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재청에서는 중앙……

○김현 위원 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소방안전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고 시설안전은 인천시가 하는 거고 위험안전은 조직위가 합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운영위요. 운영위에서 합니다.

○김현 위원 이것은 예상컨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컨트롤합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재난에 관련된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인천시가 하고……

○김현 위원 아닙니다.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이에요, 지금 시행령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대회의 최고의 대테러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국정원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 안전사고가 생기면 군이 투입이 되고 소방방재청이 투입이 되고 육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겁니다, 지금.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정부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때는 안행부장관이 하다가 잘 안 되면 해수부장관으로 갔다가 총리로 갔다가 다시 해수부장관으로 갔던 게 세월호예요. 이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오락가락하시는 거예요.

매뉴얼 가져 오세요. 매뉴얼 보고 하세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테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컨트롤타워 기능이 어디입니까? 국정원이 하는 게 맞습니까? 지형·지물도 모르고 경기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국정원장이 컨트롤타워 한다면 됩니까, 그게? 이런 것을 국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인천시대회위원장은 이것조차도 지금…… 국정원에서 하겠다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지금 이것 사고 터지면 국정원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G20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G20는 경호실에서 했어요, 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실무적으로 고생고생하는 데는 다 놔두고 숟가락 딱 얹는 게 국정원이고 대통령경호실이에요.

그러면 경기장 한 번도 안 오고 안전회의도 안 했는데 가능해요?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방안전은 소방방재청이고 시설안전은 인천시고 위험안전은 조직위인데, 그러면 사고가 터졌어요. 지붕이 무너졌어요. 누가 담당하는 거지요? 그 지붕 개조는 누가 하고 선수들이 다치면 누가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가 막 몰아쳤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컨트롤타워가 지금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정원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정원장인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국정원에서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손이라도 들어 보세요, 국정원 나와 있으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안 나왔습니다.

○김현 위원 소방방재청 나왔습니까?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예, 인천……

○김현 위원 예, 앉으세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국정원이 컨트롤타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국정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뭔 짓 하고 있나요, 국정원이? 인천지부장 안 나왔지요? 국정원 인천에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컨트롤타워입니까?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인데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쓰세요.

○위원장 김재윤 마이크석으로 가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컨트롤타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난현장에서는, 그 원인이 테러인지 또 일반 재난인지 그런 원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밝혀지고 재난 현장에서는 바로 부상자라든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거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자라든지 모든 대책을 일단 선조치를……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일상적일 때의 얘기입니다, 일상적일 때.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김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났을 때 소방방재청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요, 들어가셔도 돼요.

소방방재청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것 표상 대책본부에 소방안전본부장, 인천시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소방안전대책이고 육상에서 벌어졌을 때 119가 투입이 되고 그 컨트롤타워가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사고는 합니다, 소방방재청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직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천시가 하고, 소방방재청이 하고 시가 하고 조직위원회가 하고요. 그것은 평상 상황에서의 조직도예요.

그런데 이 조직도 말고 별도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확인해야 되고요, 조직위에서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국정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국정원장, 옥상옥이에요. 지금 새로 오신 국정원장이 공작정치 하시던 분인데 안전대책과 테러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존 경기장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7~8월 중에 점검 시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염동열 위원이 여쭤 봤는데요. 안전사고 대비 훈련, 도상훈련 해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앞으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각 파트에서 경찰과 소방방재청과 조직위와 그다음에 유관 부처가 함께 도상훈련 한 것 있습니까? 소방방재청만 한 것 말고요.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대테러 훈련을……

○김현 위원 아니, 대테러 말고요. 대테러 훈련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테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사고 대비 훈련, 도상훈련 했냐고요? 하신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예, 했습니다. 지금 그……

○김현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전체 42개소 중에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윤 마이크를 드리고요.

김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예, 이것 한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안전사고 대비 훈련 전무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했으면 한 것을 일시로 해서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예.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리 국가의 최고의 어젠다가 되어 있고 또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대테러·안전대책위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권성동 위원 그리고 그것을 왜 국정원장으로 했냐 그러면 과거부터 우리가 많은 국제경기를 치러 왔는데 그때도 대테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외국 선수단이라든가 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테러입니다. 과거 검은 9월단 사건이라든가, 뮌헨올림픽 때……

그래서 그래도 군하고 깊은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처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안전대책을 담당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8서울올림픽 때는 안기부장, 2002년 서울월드컵 때는 국정원장,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도 국정원장이 대테러·안전대책위원장을 맡아 왔어요. 정부 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여야 만장일치로.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도 제가 18대 국회 때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때도 여야 합의로 국정원장한테 대테러·안전대책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얘기하면 되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대테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제경기를 치르는데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선수가 오고 어느 관광객이 오겠어요? 철두철미하려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문제는 그다음에 예방 조치 철저히 취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어느 기관이 뭘 담당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정원장이 위원장이라는 것뿐이지만 대테러·안전 업무는 대테러·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예컨대 무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부처가 투입되고 만약에 스탠드가 무너졌을 때는 또 어느 부처가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역할 분담을 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장 주재하에 회의를 계속하면서 아주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대로 즉시즉시 투입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대테러·안전위원장을 하니…… 국정원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해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법대로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또 북한의 테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테러를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열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는 게 적절한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국정원의 기능 수행 중에서 잘못되는 부분은 질타를 하고 고쳐야 되지만 국정원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문제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 나온 것 포함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국제경기대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와 같이 특위를 열었었어요. 거기에서 이게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각 지역의 조직위에서는 아직 충분히 민감하게 정리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제경기대회의 안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4조의2에. 그런데 그 "대테러·안전대책 등"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테러에 중심이 가 있습니다. 사실 운영안전은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서 책임을 지는데 예산이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조직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안전에도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들어가 있는 지원법과 시행령 이 부분이 다 국정원장이나 해당 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에, 조직위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러에 대책을 둔 국정원장, 국정 기구에만 맡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경기대회가 열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것을 문체부나 또는 안행부, 지금 이제 앞으로 안전처가 다시 신설되는 그쪽으로 기능이 들어가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난과 테러에 대해서 약간 테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은 재난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건 위원님들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테러에 가장 민감한 미국 같은 경우도 국제경기대회가 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이라든지 국토안보부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현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북한의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상적으로 국정원이 수행하지 않는 임무인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시설들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를 다 총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선수단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23일 날 참가를 밝히고 그리고 엔트리 멤버를 제출했죠? 150명 규모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숫자만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150명을 지금 보낸다고 했는데 마지막 명단 엔트리까지 올 때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윤관석 위원 부산이 180명이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할 텐데.

또 전지훈련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어떤 종목이던가요? 양궁이던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양궁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런 경우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전지훈련 왔다, 특정 종목의 선수들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건 통상 법 절차에 의해서 보호돼야 되겠죠.

○윤관석 위원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윤관석 위원 특정 종목, 양궁처럼 와서 사전에 전지훈련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선수촌은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직 못 들어가니까 그건 뭐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외에도 아직 결정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응원단이라든지 또 예술단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럴 가능성이……

○윤관석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오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이번에 문체부장관도 교체되고 저희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선수단 외에도 응원단이라든지 예술단도 함

께 와서 아시안게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또 남북 평화 교류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응원단, 예술단이 오면 이분들도 또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 숙소는 못 들어갑니다.

○윤관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의 어떤 시설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건 아직까지…… 저쪽에서 그런 의사를 밝히면 조직위와 인천시가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나서기는 좀 뭐 하고.

다만, 또 하나는 과거의 예로 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남포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들이 아마 응원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경봉호라든가 배를 띄워서 숙소를 거기서 하고 우리는 수송만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저희들도 얘기할 때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하여튼간 선수단 외에도 응원단, 예술단이 많이 와서 아시안게임이 좀 더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D- 며칠이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95일입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 국회나 또 중앙에서, 지금 준비에 막판 스퍼트가 중요한데, 꼭 필요한 지원 같은 것 있으면 얘기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신 자체가 우리 대회 성공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사실 오늘 하나 건의를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마케팅 비용의 30%를 OCA에다가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특위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우리 지원특위 위원님들이 많이들 같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국제대회 때도 이게 같이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소방방재청 인천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 훈련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D-100일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먼저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훈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때 그 훈련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테러 중심으로 일단 훈련을 했고 말입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안전 훈련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 훈련은 저희들이 42개 대상 중에서 지금 20개소를, 그러니까 우리 일반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20개소 실시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안 된 거죠.

앉으십시오.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됐지만 별도의 안전 대책, 총체적인 훈련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언론에도 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앞두고 대테러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전 총체적인·총괄적인 대응 훈련은 아직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 개정하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러 중심의 국정원에서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는 눈앞에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인천시와 또 중앙부처가 함께,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宰榮 委員 이재영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 참석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진정으로 평화의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李宰榮 委員 앞서 제가 들어 보니까 단 한 분의 위원님도 빼놓지 않고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테러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또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으시고 또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지적들이시고요.

다만, 지금 95일이 남았는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또는 비용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위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벌써 이미 이 문제는 저희들 조직위에서 시에다가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6월 1일 테스트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서부터 가변좌석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시행사들과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월, 8월 다 가기 전에 완전히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나 우리가 안전한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성공 대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宰榮 委員 그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이 특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참 운영하는 데—예를 들어서—비용 같은 부분은 모자라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예기치 못했던 필요한 지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는 하나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충당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여기 인천시의 관계 분들도 다 와 계신 걸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진작에 지적했던 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아마 느낄 겁니다. 진작에 그걸 고쳤더라면 오늘 위원들한테 야단맞는 일이 없을 뻔했는데 공연히 그게 늦춰져 가지고……

그러나 이미 그 문제점을 알고서 특별히 비용을 다른 데 것을 전용해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하도록 합의가 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李宰榮 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참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들이 기뻐해야 될 뉴스인데, 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수 하나라도 잘못해서 다치거나 그게 무슨 '테러'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흡하게 대처해서 또 준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얘길 해야 되나.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창피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그냥 상상이 가서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한 적은 없지만 북한이 참여를 하면서 뭔가가 좀 더 준비가 이제는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타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관심을 표시했는데.

북한이 온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좋은 호재가 되면서도 또한 상당히 걱정이 또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치는 사람이 나와도 안 되겠지만 심지어 무슨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넘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각종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서부터 남북협력팀이라는 걸 가동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 지금 그 발표 이후에 거기에 대비한, 또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국제대회에서 북한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활동했던 내용을 재점검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걱정 없이 좋게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李宰榮 委員 걱정 안 하다가 자꾸 사고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李宰榮 委員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내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입니다.

우리 김영수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님, 김성일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이하 또 뒤에 배석해 계시는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거 납품받으면서 조금 음식 대접이라도 받고 시설 제대로 안 된 것, 조임새라도 하나 덜 조여진 것, 이것을 검수받는 것 이게 참 큰일이다 그랬는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 역시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 난간이 어린 애 팔뚝만도 못한 난간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게임에 흥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만약 쏠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난간이 간당간당해 가지고 사람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게 혹시 구멍도 뚫려 있고 밟으면 울렁울렁하고…… 이게 안정감 있게 딱 밟으면 탁탁 이렇게 좀 강력한 이런 육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지는 않지만 밟으면 울렁울렁하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 이것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흥분한 관중들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 700㎏만 되겠습니까? 그걸 견뎌낸다는데……

땜질도 보니까 테두리가 안 맞아 가지고 하얀 테이프로 노랑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검수를 했습니까? 검수하면 이것 제대로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검수합니까? 간판 오자투성이도 검수를 하고 이렇게 난간의 이음새가 안 맞아 가지고 노랑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 이게 검수의…… 공사비를 줬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인천이 지금 책임을 집니까? 책임 어떻게 집니까? 책임을 진다면 인천시 재정으로 책임집니까?

사람이 공무를 맡았으면 좀 제대로 하고 책임은 정말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 책임을 공무원이 잘못하면 개인 재산 한 반 정도 내놓도록 법을 고쳐야 돼요. 이것 책임 하면 그냥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이건 끝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으로 책임지고. 그러면 혈세로 막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참 도대체……

우리 김영수 조직위원장께서도 걱정이 돼 가지고,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 법률가시니까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래 마무리해 놓고 테스트 이벤트까지 벌였다니까, 그걸 갖다가 자랑삼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난간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노란 테이프로 붙여 놓은 채로 테스트이벤트를 벌였다고 하는 건지 참 웃음이 나오고, 이게 사고 안 나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참 안전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빠진 지가 오늘 두 달입니까? 오늘 꼭 두 달이 되었네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참 바뀐 게 없고 검수했다면서 그냥 그 난간 그렇게 허술한 것, 그래 갖고 우선 사람이 불안해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면 울렁울렁할 것 아닙니까? 얇은 철판에 테두리 그것 잡아당기면 휘어집니다. 그것 흔들흔들합니다. 외국에 여러 번 가보셨지요, 우리 부시장님도?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이한성 위원 적어도 외국 가 보시면 교량의 난간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로등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 다리 난간에 있는 가로등을 세워 놓은 게 얼마나 굵은가, 아름드리로 굵습니다. 그렇게 굵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느다란 이런 것 가지고 또 다리 난간 테두리를 유치원 울타리처럼 이렇게 가늘게 모양만 내 가지고 이게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고 자동차 가다 보면 그냥 건드리면 강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다리 난간 보면 아주 육중해 가지고 트럭이 부딪쳐도 도로 튕겨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육중하게 실제로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양만 겨우 내 가지고 돼 있는 데다가 그것이 만약에 흥분해 가지고…… 가설 경기장은 가만히 있다가 박수만 살살 치고 나가야지 만약에 "야"하고 흥분하다가 쏠려 버리면 그냥 난간 다 부러져 버리고 땅에 한 15m 떨어져 가지고, 아스팔트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아주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적어도 테두리 정도는 아주 육중한 테두리로 치고 밑의 난간은 아스팔트에 직접 쇠기둥을 몇 개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걱정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의 성찬은 보니까 "철저히 보강을 한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

스템을 수립을 했다.” “사전 계획 수립을 한다.” “인천시가 전체를 책임을 진다.” “완전히 해결되리라 보장한다.” 말은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 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말이 있는가.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변석 문제 특히 가시적으로 위험스럽게 보이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추후에……

○이한성 위원 그것 새로 다 뜯고 새로 해야 되고.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 그것 참 정말 창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테스트이벤트를 했다는 건지 창피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유독가스 누출 사고·폭발 사고 이것 많이 벌어지거든요. 인천 지역이 화학공업 시설이 있어 가지고 특히 많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보면 인천에서 2건 크게 폭발 사고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시도 인구가 한 300만 돼 가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거기다가 이제 부천, 안산, 고양, 파주, 김포, 군포 이렇게 많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이한성 위원 그렇게 하면 서울시도 서부 지역이 다 포함되고 그 주변 한 700만~800만 인구 중에서 그 모든 시민들이 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 가정용 LPG가 혹시 폭발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터져서 보도가 되고 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것 또 북한 소행인가?’ 이렇게 또 막 동요해 가지고 관광객과 선수들이 그냥 충격에 휩싸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한번 일제 점검을 하시고 또 시민 교육도 잘해서 제발 안전관리, 경기 기간 중에라도 좀 사고가 안 나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지금 이것도 말씀을 하도 거창하게 해 가지고 제가 그냥 대답만 받고 말아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인력이 없어 가지고 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만 우선 해 보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안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유관기관하고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좌우간 그게 한 700만 인구와 또 이동하는 탱크로리, 유독가스 차량 서로 충돌해서 또 사고 나고 참 별 요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이한성 위원 정말 전 국민이 조심해서 치러야 될 아시아촌의 축제인데 그런 불상사가 없이 평화롭게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소리 듣도록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하십시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아까 수영장의 안전 문제가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일반인들이 수영을 합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일반인들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테스트이벤트였습니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소년체전 한 번 해 봤고요 지금은 일반인들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왜냐하면 아까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국제대회가 타임 테이블이 나와서 높이별로 경기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때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년체전 때도 그렇고 사실 대회 전에 어떤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대회 전에 그런 대회를 꼭 문학경기장에서 해야 되나, 박태환 수영장에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높이에 대한 경기 일정을 다르게 해서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을 해 봤습니다.

아까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지난번 체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도했지만 5% 정도 사용하고 사용 안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기계가 다르다든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연로한 분이 계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그것이 교육이 잘 되고 기계가 통일이 돼야 되고 사전에 어떤 시스템이 잘 안정되지 않으면 선전은 스마트 안전 대책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여기 시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그 스마트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체전처럼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이 유난히 공장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화학 이런 공장지대 같은 것? 저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정말 우리나라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많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정말 인천에 그런 위험한 약품이라든지 화학품이라든지 이렇게 경기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그런 공장지대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스탠드에 대해서, 가건물에 대해서, 가변성 좌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뜯을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시겠어요, 그렇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이에리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냥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보다 더 많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쓰지 않고 인천아시안게임만 쓴다 그러면 그때 젊은 애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주변에 쭉 동선을 만들어서 위험을 방지한다든지 뭔가 좀 섬세한……

지금 그 건물 가변 좌석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무너질까 봐 떨어질까 봐 이런 부분들. 이것은요 관중석과 관중석 사이에 무슨 물건이 떨어질까 봐 망을 설치한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안게임이 D-95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D-124일입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요. 저는 지금 사실 시설에 관련된 것은 인천시에서도 하시는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2주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그때 가서 시작할 수도 없고. 아시안게임 끝나면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대다수의 21개의 시설인가는 기존의 시설을 그냥 사용하게 되고 2개의 시설만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되지요.

지난번에 D-100일, 6월 11일 모 방송국 ‘D-100일 앞두고 점검한다.’ 보셨습니까?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시설이 제로라고 나왔습니다. 그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시장님, 혹시 보신 기억 없으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한번 보세요. ‘D-100일’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표지판이 있었을 때 그 표지판을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검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검지로 할 수 있는 게 반대로 돼 있다든지 거꾸로 돼 있다든지 하여튼 층계에서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 방송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애초에 시설이 될 때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고려돼 있는 설계와 모든 것이 구조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동익 위원님이 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꼭 장애인아시안게임보다는 이제는 점자와 휠체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점검이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관중석에 대한 것이 몇 프

로의 비율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메인 스타디움에 장애인이 앉아서 입장식을 볼 때 보호대의 설치가 허리 정도 높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꺾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안전 점검을 하시면서 휠체어,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점자와 보호대의 높이 그리고 층계를 오르내릴 때 부딪치지 않게 방향을 좀 분명히, 왼쪽은 내려가야 되고 오른쪽은 올라가야 된다든지 엇갈려서 내려가고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그 부분은 우리 장애인조직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요 조직위원회……

○이에리사 위원 그게 일상적인 대답이신데요. IPC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IPC 규정에 의해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비에서 8000억 이상을 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경비에서 조금 떼어서라도 지금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돼서 장애인 아시안게임 때도 성공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 당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왜 아까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참여정부 때는 컨트롤타워가 국가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해서 재난·재해 등 사건이 생기면 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각 부처를 통할했기 때문에 혼선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마다 담당하는 주체가 다 달리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또 분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조직위와 인천시가 분리가 돼 있는데 그 위에는 또 국정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을 접하기 전과 그 사건 발생 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지금 오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경기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형 안전사고의 가능성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법체계가 지금 불비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치면 사건이 생기면 안행부장관이 지금 이것을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회재난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대회의 경우는 또 국정원장이 안전관리위원장으로 돼 있고 인천지부장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부장은 또 대테러만 하시는 것이지 이분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 안전이라고 하면 화재, 교통, 시설 경비, 재난재해 이것 다 포함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지금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장님께서 이게 그냥 안전할 것이다, 잘할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고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상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도상훈련을 해야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면 급하게 국회에다가 법 개정을 요청해 가지고 신속하게 거기에 맞는 체계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국가와 정보원이 국제대회를 담당했을 때는요 1988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테러 또는 북한의 위협이 가장 심각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북한 선수가 참여하

는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테러에 대한 것도, 국제적인 테러 집단으로 인한 테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북한으로부터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국정원이 한다라는 것도 물론 한 축으로 가지고 있지만 대내 국민들이 볼 때 불안한 요소들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기간 내내 대회가 잘 치러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로 자꾸 가기 때문에 다음번 때는 저희 국제대회 유치위원회에서 보고하셔도 되지만 문체부에서도 또 이 문제를 다룰 테니까 그때는 안을 갖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각종 재난에 대한 도상훈련을 강화하고 또 이 컨트롤센터가 누가 컨트롤러가 돼야 될지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6월 1일에 테스트 게임을 저도 가 봤는데 그 뒤에 언론에 많이 나 갖고, 아까 백재현 위원님이 SBS까지 틀어 갖고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경기장 멋있게 정말 잘 지어 놓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경기장 짓기 전에만 한 번 시찰을 갔었고 지난번 회의 때 대회 임박해서는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경기장이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아주 전체가 다 그냥 부실한 것처럼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 지원본부에서 한 거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윤관석 위원 저도 우리 염동열 위원님하고 런던 가서 봤는데 가변석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약간 조잡해 보였어요, 하여튼 가변석이. 왜 그렇게 됐는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마치 전체 시설이 부실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윤관석 위원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시설 구조물의 아까 말씀하신 하중에 대한 이런 문제는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한 2회 정도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변석에서 일시에 관중들이 밀리거나 집중했을 때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그런 테스트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 대책을 세우세요. 아까 이한성 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환호성도 못 지를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경기장 잘 지어 놓고 가변석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우십시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열 위원 잠깐만, 그것 한마디……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아까 그 가변석, 제가 대형 콘서트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된 데 제가 한 번 앉아 봤어요. 한 두 시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박수 치는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심적으로 불안하더란 말이지요. 윤관석 위원하고 런던 갔을 때 보니까 임시 시설로 절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시각적으로. 누구든지 그것 보면 아주 정시설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 하단부에서도 보니까 천장이 다들 오픈 돼 있고, 이것 누가 봐도 임시 시설이 다 이렇게 딱 느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지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염동열 위원 그것이 주는 안전에 대한 불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마는 뭐 몇 조의, 1조 5000·7000억 이렇게 들여서 해 놓고 조금 아끼자고 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이제 세월호 때문에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오픈되어 있어요. 또 한번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상당 부분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의 신뢰도가 실추된다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 때운다라는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점검을 해 주세요.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그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박대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보충질의 하려다가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 느낀 바로는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 예컨대 화재 발생, 국지성 호우, 테러 또 기타 무슨 붕괴사고, 사람들 심리적인 러시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쏠림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각각 초기에 관람객은 누구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현장 책임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며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각 건별로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보시면 이게 산만하고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스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박대동 위원님과 우리 특위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개막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0월 18일 개막될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를 앞두고 준비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 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직위, 국정원, 안행부 그리고 소방방재청, 경찰청 관계자를 소집해서 명확하게 국제경기대회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구축하시고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이 조치사항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일 국장님, 장관께 보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오늘 가변 관람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조직위와 협의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조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외에도 개·폐회식과 관련된 안전대책 문제, 그리고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와 안전대책 문제, 그리고 다각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인천시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은 준비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경기대회의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수 위원장님, 김성일 위원장님, 조명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성동	권은희	김재윤	김 현
박대동	백재현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최동익	황영철		

○청가 위원(1인)

박 혜 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 진 대
전 문 위 원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 상 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 영 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 성 일
인천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조 명 우
소방안전본부장	강 태 석